

유아용 그림책의 이용에 나타난 이중독자구조의 탐색 : 만 5세 유아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ual Readership Represented in the Use of Picture Books by Families of 5-year-old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 교 수 최 나 야**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Choi, Na-Y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ual readership represented in the use of picture book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of 9 families including 5-year-ol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xercised their exclusive right to choose books for their children. They usually used online bookstores, libraries, or book rental shops by consulting other mothers or merchandisers. On the other hand, fathers and children seldom involved themselves in the selection of picture books. Second, children preferred interesting books, while mothers favored complete series of books, which were usually for educational purposes. Third, dynamic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was occurred during their daily routine of reading picture books together. Five-year-olds seemed to be transitioning into independent readers, and mothers showed that they were also readers of picture books when they appreciated and enjoyed them.

▲주요어(Key Words) : 그림책(picture books), 이중독자(dual readership)

I. 서론

아동문학의 세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성인은 아동문학의 텍스트가 되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그에 대한 평론을 하고, 수상작을 정하며, 출판 결정을 내리고, 구매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독자인 아동의 의견은 종종 간과되기 쉽다(Davila & Patrick, 2010). 어린 독자가

어떤 책을 선호하고, 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인들이 무시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문학의 또 다른 독자로서의 성인의 역할도 무시될 수 있다. 아동문학의 발신자(addresser) 즉, 작가는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지만, 독자인 수신자(address)는 아동일 수도, 성인일 수도 있다. 특히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두 가지 코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문학과 구별된다. 하나의 코드는 유아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유아와 함께 책을 보는 성인을 향하는 것이다(현은자·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러한 특성은 이중 수신(dual address), 이중 독자(dual readership, dual audience), 또는 횡적 독자(cross reader) 등의 용어로 묘사된다. 이는 그림책이 성인문학보다 훨씬 더 복잡한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C00004).

** 주저자·교신저자 : 최나야 (E-mail : choinaya@catholic.ac.kr)

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Nikolajeva & Scott, 2001). 아동문학의 이중독자구조는 그동안 문학작품의 텍스트 자체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탐색되어왔을 뿐, 유아와 성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 이중독자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유아들이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문학작품인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 매체이다. 어린 유아들은 문해 발달에 있어서 성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매체로 하는 상호작용에서 유아와 성인은 서로 평등하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유아도 그림을 읽으며 책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함께 읽는 성인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림의 세부 묘사를 탐지하는 능력에서는 오히려 유아들이 성인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 점은 일반적인 아동문학과 구별되는 시각매체로서의 그림책이 갖는 특성이 다(현은자 · 김세희, 2005).

한편, 유아와 그림책을 함께 보는 성인은 책을 선택하고,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역할만을 맡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림책들은 어린 독자들을 배제하지 않고도 성인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성인들은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로 회귀하거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시적인 문장에서 문학적 영감을 얻기도 한다. 또 어떤 그림책들은 유아들에 비해 성인들과 훨씬 더 잘 교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nthony Browne(2001)의 「돼지책(Piggybook)」은 가사노동 배분의 불합리함과 외로움에 지친 주부들에게, 김서정과 한성옥(2003)의 「나의 사직동」은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되찾고픈 성인들에게 환영받는 그림책으로 유명하다.

성인과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은 유아들의 문해발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책 활동은 읽기와 쓰기(유향선, 1997; Adams, 1990; Mason, 1992; Morrow, 1988)뿐만 아니라, 이해력(박상희 등, 2008; 현은순 · 홍혜경, 2009), 표현력(김숙령 · 육길나, 2007), 어휘력(박상희 등, 2008; 이지연 등, 2004; Arnqvist, 2000) 및 사회성(박유미, 2008; Doyle & Bramwell, 2006; Snow & Dickinson, 1990)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그림책은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매체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며, 개별 유아뿐 아니라 대 · 소집단에 대해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매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특성으로 인해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수 · 과학 교육, 미술교육, 건강 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친 통합적 유아교육의 자료로 그림책이 활용되고 있다(윤진주, 2009).

이처럼 그림책은 유아기의 핵심적인 문해자료이므로, 유아들이 선호하는 책의 특성 및 책 선택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읽기 지도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Anderson et al., 2001). 그러나 유아와 성인이 함께 읽는 그림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독자로서의 두 집단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취학 전의 유아들이 선호하는 책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나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강병재 · 하정희, 2000; 권기남, 2000; 김선옥 등, 2006; 정남미, 1998), 유아들의 실제적인 선호와는 거리가 있다. 특정 장르의 그림책 몇 권에 대한 유아들의 행동적, 언어적 반응(권기남, 2000; 장지영, 1994)을 그림책에 대한 선호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인 성인이 추천하는 양질의 책과 유아들이 선호하는 책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김정화, 2009)는 점에서, 유아 입장에서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 의해 의도적, 목적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 유아 스스로가 선호하는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그림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부모와 교사 및 그림책 전문가가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선옥 등, 2006).

소비자학적인 측면에서, 유아용품은 전통적으로 구매자(purchaser)와 사용자(consumer)가 서로 다른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유아용 식품, 의복, 장난감 등은 성인이 구입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구조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 유아들이 소비자로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Mangleburg, 1990; McNeal & Yeh, 1997). 비록 여태까지 연구를 통해 탐색된 적은 없으나, 그림책의 구매 역시 유아들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권미은 · 신현기, 2008; 이 경우 등, 1997)은 유아들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수년간 그림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령의 유아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림책 소비자의 가장 큰 특성인 이중독자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론적인 기술에서 발전한 실재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은 전체 출판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출판통계에 따르면, 신간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가 아동도서로 총 2,927만 5,142부가 발행되었다. 이는 전체 발행부수의 25.88%를 차지하는 비율로, 17.55%에 해당하는 일반 문학을 훨씬 앞지르는 수치이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0). 유아들을 주독자로 하는 그림책은 성인 대상의 도서에 비해 훨씬 다양한 언어권의 책들이 번역 출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창작 그림책의 출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인지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기꺼이 많은 그림책을 구입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자녀에게 유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미은·신현기, 2008; 노진형·김은주, 2009; 박찬수, 1997) 개인적인 정보의 부족과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과잉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들이 유아용 그림책을 구매하는 경로는 방문판매와 홈쇼핑 등을 통해 전집류를 사는 경우와, 직접 서점에 나가서 단행본을 사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고 여겨지는데(김규연, 1999),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구매의 맥락과 성인과 유아의 역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와 그림책을 이용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유아를 둔 가정에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박상희, 2008; Shapiro, Anderson & Anderson, 1997). 질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만으로 유아들을 위한 문해환경 및 읽기 지도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것은 도서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노진형·김은주, 2009). 따라서 성인과 유아가 이중독자로서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림책을 활용할 때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책을 가급적 많이, 최대한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하며, 책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길 기대하면서도 정작 책을 소개하는 방법이나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주로 단순하게 읽어주는 행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진형·김은주, 2009).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상호작용에 대해 이중독자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 중 한쪽인 어머니를 주로 연구해왔으나, Anderson 등(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책 선택을 동시에 살펴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여겨진다. 성별에 따른 문해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많고,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문해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구에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을 참여시켜 그림책의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책의 구매와 활용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소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부터 시작하여 대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소수의 만 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계량화를 통한 일반화된 결과를 얻기 이전에 탐색적 성격을 띠고 수행되었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이용, 즉, 구매와 활용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 구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아와 성인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인과 유아 간에 그림책을 매체로 하여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아동문학의 이중

독자구조가 그림책의 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초기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어머니, 아버지, 유아가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림책의 이중독자 구조는 구매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림책의 이중독자 구조는 활용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다.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얻은 자료를 분석, 조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가정에서 그림책을 구매할 때 누가 선택을 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가정에서 그림책을 구매할 때 어떤 그림책을, 왜 선택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가정에서 그림책 읽기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사회적 계층이 가정의 문해환경과 문해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산층 가정의 부모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들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수준과 축적된 도서 이용 경험을 고려하여 취학을 앞둔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비확률적 표집추출방법 중 목적표 집법과 할당표집을 함께 사용하였다. 즉, 만 5세 유아와 그 부모들을 목적표집하고, 유아의 성별,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만 5세 유아 총 9명,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 9명씩으로, 총 27명이었다.

유아들은 모두 취학을 7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평균 월령은 만 6세 1개월이었다. 부모들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는 만 40세, 어머니는 만 36세의 평균 연령을 보였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최소 300만 원대 중반부터 최고 700만 원대 초반까지로 나타났다. 가정문해환경 척도인 CHELLO(Neuman, Dwyer, & Koh, 2007)를 이용해 가정의 문해환경을 측정된 결과, 총점의 범위는 13-25점(26점 만점), 평균 18.8점으로, 대체적으로 풍부한 문해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가정에서는 400-2180여 권, 평균 930권 정도의 그림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해환경과 부모의 학력,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참여자들은 '좋은 제보자'(최영신, 1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N=27

번호	유아	어머니	아버지	거주지	월 평균 소득	문해환경 점수
1	A 남 외동	Am 대졸 공무원	Af 대졸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500만원대 중반	21
2	B 여 남동생 있음	Bm 대졸 회사원	Bf 대졸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300만원대 후반	21
3	C 여 남동생 있음	Cm 대학원재학 대학원생	Cf 대졸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300만원대 중반	23
4	D 남 외동	Dm 대졸 중학교 교사 (일본어)	Df 대졸 회사원 (연구직)	경기도 부천시	500만원대 초반	13
5	E 남 외동	Em 대졸 회사원	Ef 대졸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500만원대 중반	25
6	F 여 남동생 있음	Fm 대졸 전업주부	Ff 대학원 수료 개인사업	서울시 목동	700만원대 초반	13
7	G 여 외동	Gm 대학원졸 (전직 중학교 영어교사)	Gf 대졸 회사원	서울시 목동	500만원대 초반	15
8	H 남 형 있음	Hm 대졸 전업주부	Hf 대졸 회사원	서울시 신도림동	400만원대 초반	16
9	I 남 형 있음	Im 대졸 전업주부	If 대졸 공무원	서울시 신도림동	300만원대 중반	22
계	9	9	9			

<표 2> 심층면접의 질문 내용 목록

영역	질문 내용
가정 문해환경	그림책 장서량, 종류(장르), 비치 방법, 도서 영역, 도서 사용, 쓰기 도구, 놀잇감, 기술
선호하는 그림책	보유 도서 중 아버지, 어머니, 유아가 각각 가장 좋아하는 5권
그림책 구매시 고려사항	장르, 형식(전집-단행본, 시리즈, 종이책-전자책), 창작-번역 여부, 판형(하드커버-페이퍼백, 얇은 종이-보드북, 크기), 글 작가(인지도, 학력, 이전작품), 그림 작가(인지도, 학력, 이전작품), 이야기의 질(주제, 전개, 구성), 제목, 글의 질(문체, 리듬감, 반복, 맞춤법), 그림의 질(재료와 표현 기법, 색감, 구체성, 캐릭터), 정보원(서평, 추천, 지인, 광고), 표지(앞표지, 뒤표지, 띠지, 면지, 서지 정보, 추천사), 권위(수상 여부, 판매량, 출판사 인지도), 발달단계(활자 크기, 어휘 수준, 문장 길이, 내용 난이도), 내용(교훈, 정보, 정서), 교육성(언어능력, 개념발달, 상상력, 창의력, 윤리/도덕성, 문제해결력, 간접경험), 다른 매체(인형, 교구, DVD, 영화, TV프로그램)와의 연계, 함께 볼 성인/유아의 선호, 가격(정가, 할인율, 이벤트 여부, 쿠폰 유무, 사은품), 친구/이웃/기관의 구매 여부
그림책 구매 방법	구매 희망자, 정보원, 온-오프 구매, 구매 장소-웹사이트(서점, 인터넷서점, 홈쇼핑, 방문판매원, 도매시장), 비용 절감 방법, 1회 구매 권수, 월 구매액수
그림책 활용 방법	읽어주는 시간(빈도, 시간대, 일일 평균), 권수(일일 평균), 책 선정방법, 읽어주는 방법(문장 그대로 읽어주기, 음성 매체 들려주기, 질문하면서 읽어주기, 그림만 보여주기, 내용 요약 설명하기, 그림을 설명하기), 질문과 대답 양식, 그림책 관련 활동 수행 여부

2. 연구 도구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해 반구조화시킨 질문 목록은 <표 2>와 같다. 그림책 구매시 고려사항은 김경호(1993), 권미은과 신현기(2008), 현은자와 김세희(2005), Anderson 등(2001), Reutzel과 Cali(199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책의 구매 및 활용 방법은 박상희(2008)와 임연수(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가정 문해환경에 대한 정보는 CHELLO (Neuman et al., 2007)를 활용한 관찰과 부모 면접을 통해

얻고, 선호 그림책, 구매시 고려사항, 구매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는 유아,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심층면접과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구하였다.

3. 연구 절차

참여자들과 사전 만남을 통해 사전에 라포를 형성한 후,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 목록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

다. 아버지가 가정에 있는 시간에 방문하기 위해 휴가기간이나 평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후를 선택하였다. 면접 내용을 녹음하는 동시에 관찰 내용과 연구자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유아,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일대일 면접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면접하였다. 가정의 문해환경과 부모-유아 간의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 상황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문해환경 척도인 CHELLO(Neuman et al., 2007)를 사용하기 위해 아동학전공 4학년생인 보조연구자에게 각 문항과 하위요인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킨 후 관찰을 실시하였다. 부모가 집안을 둘러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해 응답하거나 지면에 적도록 하였다. 각 가정당 총 면접 시간은 평균 2시간 40분 정도였다. 미흡한 정보는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로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보조연구자가 평정한 문해환경 점수를 연구자가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평정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관찰기록과 함께 녹음한 면접 내용을 발화내용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즉,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에서 그림책의 이용에 나타나는 이중독자구조를 보여주는 원자료들을 추려내었다. 이 내용에 각각 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소주제들을 설정하였고, 이를 다시 내용별로 분류하여 대주제로 묶었다. 그리고 대주제-소주제-원자료의 관계가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 다시 원자료 수준으로 돌아가 발화의 맥락을 살펴보고, 관찰 내용도 함께 참고함으로써 범주화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누가 그림책을 선택하는가?

1) 아버지의 무관심

사례연구 결과, 각 가정에서는 그림책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대여 또는 교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한 그림책을 구매, 대여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 실제적인 선택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녀용 책의 선택을 부인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다만, 책의 구입 가격에 대해서만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드러났다.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가정의 소비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무관심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불만을 표현하거나, 포기해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I의 어머니는 '(아빠는) 제가 빌려온 책이나 집에

있던 책을 읽어주시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해 관점 같은 건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Am: 대부분은 제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아빠는 책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잘했다, 필요했으니까 샀겠지' 그러니까 충돌은 없죠.

Cm: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깐 믿어주더라고요. 아빠는 아무래도 직장일로 바쁘니까. 전집은 고급일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반응을 아빠가 보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전에는 조금 몰래몰래 샀었어요. 가격도 좀 속이고 했는데, 인제는 그 단계도 지나서 말 안하고 나 혼자 그냥 사죠. 너무 책이 많으니까 아빠는 새 책이 들어와도 샀는지 안 샀는지 관심도 없어요.

Df : (부인이 고른 책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아이가 책을 읽겠다고 할 때는) 플라오라고는 해요. 자주 안 읽으니까요 같이. 뭐, 아내가 알아서 하니깐.

Em: 아빠하고는 처음에 책 살 때 많이 싸웠어요. 책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만 원 줬어" 이라고. 근데 애가 말을 빨리했어요. 그게 남편 생각에는 '책 영향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책 사는 것은 암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사들이고.

Fm: 아빠는 책을 결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빠가 사 온 책은 한 권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래서 아빠는,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 거면,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Gm: (자녀의 책에 대한 무관심이) 저희 집이 제일 심할 걸요?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 아주 일임을 했죠. 그래서 거의 제로죠, 아빠는. 무슨 책을 빌리는지도 몰라요.

2) 유아의 선택권 박탈

그림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의 선호와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책 선택을 배제하는 것은 유아가 아직 어리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엄마가 골라준 책의 범위 안에서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Am)는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에게 책을 충분히 못 읽어주어 미안하며, 아이가 나중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 없다'고 말하였다. 이 가정에서 유아에게 답례품인 그림책을 고르도록 했을 때, 여러 권 중에서 문장의 양이 많은 류재수(2009)의 「백두산 이야기」를 먼저 제외시킨 유아는 '이 책은 엄마가 읽어주기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위한 선물인 책을 고를 때조차도 어머니의 취향을 먼저 고려하고 스스로의 선호를 뒤로 미루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어머니(I_m)는 책을 빌려올 때, 본인이 3권쯤 고르고 '아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1권 정도만 직접 고르게 한다고 하였다. 그 가정의 유아(I)에게 어떤 책을 사고 싶은지 물었더니, '새 책'이라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그 이유를 묻자, I는 '엄마가 책을 안 사줘요. 빌려보는 거 말고 서점에 가서 너무나 사서보고 싶어요.'라고 응답했다. 어머니는 책을 빌릴 때 구색을 맞춰 유아가 일부 책을 골라보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지만, 유아 입장에서는 스스로 책의 구매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

Am: 아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어도 아직 애가……. 45세 때는 애가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 이거'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해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중략) 서점에는 전에 한 번 데리고 갔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애가. 막 정신이 없이……. 애가 '책이 필요하다', '책을 사야겠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유치원에서 엉뚱한 거, 글밥이 너무 많은 걸 골라온다던지, 아니면 너무 애기 책을 골라온다던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겠죠. 왜냐면, 도서실이나 서점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선택을 하던 습관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골라 준 것 중에서만 (읽어달라고) 갖고 오니까.

Bm: 아직까지는 거의 엄마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 생각으로 고르면 그게 아무래도 폭이 좁지 않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애보다는 연륜이 있으니까. 그렇게 골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Cm: (서점에 데리고 가면) 고를 수 있는 나이이기보다는, 좋아하는 책 성향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아이들 흥미만 그런 책, 굳이 안사고 한번 가서 봐도 되는 책을 사달라고 할 경우에는 딱 걸로 돌린다든지, 타협이 될 때도 있고 정말 아닐 때는 좋아하는 걸 제가 제시하죠. 예를 들어서 '스티커 사 줄게' 그런 식으로.

Fm: 내 아이의 생각 그런 걸 떠나서 재가 아직은 책을 고르는 선별력이 조금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겠지만, 원하는 책을 사주지는 않아요.

Gm: 단행본을 사야 직접 고르게 되는데, 아이도 책을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안 키워주었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의 성향을 이미 파악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책을 이렇게 빌려오니까 엄마를 믿는 것도 있어요. 엄마가 당연히 책을 골라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는지

가 중요한 거 같아요. 어느 날 단행본을 서점에서 고르게 하는 게 좋다는 걸 TV로 보고 아이한테 갑자기 고르라고 하면 아이가 당황스럽겠죠. 이제까지 고르라고 한 적이 없는데…….

Hm: (빌려온 책을 보고) '엄마! 이건 사줘.' 이래가지고 인터넷 뒤져 보면은 다 전집이라 따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또 빌려올게.' 뭐 이리다 보면 저는 또 다른 책에 눈이 가 있어서 그거 빌려오고. (아이가) 스스로 고르는 건 잘 못하는데, 그걸 아직 제가 못 붙여줬나 봐요.

3) 선택을 담당하는 어머니

자녀를 위한 그림책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주체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들은 주로 인터넷 서점이나 중고도서 교환 및 판매제도, 도서관 및 도서대여업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용 그림책을 선택해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여기는 한두 가지 유통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유통방식의 선택 뿐 아니라, 자녀에게 새로운 책이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책의 종류를 판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몇 명의 참여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책을 '넣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유아의 수동적 수용과 대비되는 어머니의 능동적 공급을 시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Cm: 제가 판단해서, (유아가 책을 읽어달라고) 한참 가져오다가 뜬한 시기가 있어요. 그럼 '아, 애가 왜 그럴까' 하고 보면 '아, 새로운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때 딱 넣어주면 막 읽어요.

Dm: 거의 대부분 책 구입은 제가 다 하거든요. 읽어주는 것도 대부분 제가 다 하고. 아빠는 놀아주는 쪽을 많이 하거든요.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요.

(1) 인터넷 서점 이용

단행본 그림책의 대표적인 구매 경로는 인터넷 서점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 어머니들은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비용이 정가 위주라 비싼 반면, 온라인 구매시에는 할인 및 각종 우대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으로 유아용 그림책을 주문한다고 하였다.

Am: 저희처럼 맞벌이 부부는 주말 밖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무조건 인터넷이죠.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서점보다 인터넷이 할인율도 높고, 계속 사면 포인트도 쌓이고, 제가 직접 가는 시간도 별 수 있고.

Hm: 단행본은 XXXX에서 구입해요. point가 쌓여서 할인되고 이런 것 때문에. 땡처리 쿠폰해서요, 주말에

밤 거의 12시 다 되 가면 뭐 1000원인가? 2000원 할인인가? 해서.

Im : 서점은 원가 다 받으니까 열 번 가면 한 번 살까? 너무 급한 거만 사지, 메모해 놨다가 인터넷으로 사요. 인터넷은 최소 10~15%에서 많이 하면 40~50%까지 할인을 해 주니까요,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책이라도 가격이 다 틀려서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 3군데 다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소장하고 싶거나 둘째한테까지 물려주고 싶거나 하는 건 사는 편이에요.

(2) 중고도서의 이용

전집류 도서는 새 책이 아닌 중고도서로 매매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인터넷이 매매나 교환을 증대하는 매체로 이용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상업적 판매자가 아닌 같은 입장의 소비자들인 판매자가 되는 방식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고, 가격이 싸다는 점과 중고책의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입한 그림책은 일정 기간 이용 후에도 다시 환가가치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m: 중고는 거의 반값이에요. 엄마들끼리 파는 곳은 이윤 안 남기니까 그냥 다 싸게 팔더라고요, 깨끗하고.

Em : 엄마들이 대부분 직거래 하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중고 인터넷 서점에서 사는 거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 안하는 것처럼 너도 엄마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낡았으면 '낡았다'고 표현해줘요. '몇 페이지가 지저분하다', '몇 페이지가 찢어졌다' 다 표현해주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그래요. 엄마들이 보통 책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Im : 나중에 책이 온전하다면 (팔) 생각이 있어요. 전 책이 자산가치가 있어요.

(3) 도서관·대여업체 이용

어머니들이 그림책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지 않고 빌리는 방법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가정에서 책을 소장하여 보여주는 데에서 한계를 인식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더 다양한 책들을 빌려주어 다독을 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료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의 서비스와, 입맛에 맞는 책들을 다량 구비하고 있는 도서대여 전문 업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경우도 어떤 책을 빌릴지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다만 이러한 업체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된 것은 전집에 속한 책을 묶음으로 빌려야 한다거나, 매번 새로운 책만 빌리게 되어 자녀가 반복해서 읽을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었다(Hm).

Bm : 여기는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멀리 있는 책을 상호대차 다 해줘요 가서 일주일 빌리면 한 사람당 세 권 해서 아홉 권씩. 요즘엔 또 신간이 막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토요일에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해요. 도서관에서는 거의 제가 위주로 골라요.

Cm : 방학 동안이나 시간 있을 때는 어린이 도서관 많이 활용했어요. 또 한참 책 읽어줄 때 사정상 전집을 못 들여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일주일에 열세 권이나 빌릴 수 있더라고요.

Em : 책 가지고 놀기도 하고 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거긴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Hm : 사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있어야 할 것만 사주고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는 전집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쪽 있는 책에서 뽑아 읽는 것보다 새로운 책을 빌려와서 '오늘은 뭐지?' 이런 재미로 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거기 있던 책을 다 읽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질을 사봐도 60권 밖에 안 되면 사실, 열심히 읽으면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권수란 말이에요. 저는 좀 더 많은 권수를 읽고 싶어서. 전단지 보고 가서 제일 먼저 등록했죠.

Im : 도서관 두 곳 하구 여기 동사무소에 책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돌아오. 애들 학교 갈 때는 제가 오전 중에 골라오고 방학 때는 같이. 한두 번 읽으면 관심이 떨어지니까 굳이 구매를 많이 한다던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엄마들이 있어야 한다는 책 외에 창작동화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빌려다보고 있어요.

4) 정보제공자인 제3의 성인

각 가정에서 유아용 도서를 구입할 때 아버지의 참여가 극히 적은 것이 특징적 현상이었던 데에 반해, 부모 이외에 제3의 성인이 크게 개입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주변 인물, 즉, 주로 자녀 또래의 어머니들과, 도서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체의 사업자였다.

(1) 자녀의 친구 어머니들과의 정보 교환

참여 어머니들은 책에 관한 정보를 주변 학부모, 특히 자녀 또래집단의 어머니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상은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서로 모르는 학부모일

수도 있다. 자녀들끼리 친한 경우에 형성된 어머니 집단 내에서 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인터넷에서는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추천 도서가 소중한 정보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니들 간에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 정보는 서로에게 노출하기를 꺼려 책에 관한 정보를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도 했다. 또한 책에 관한 의견이 어머니들 간에 분분한 가운데,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안한 모습도 드러났다.

Am: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몰라서, 엄마들이 좀 저를 챙겨주는 편이에요. '이거 안 읽혔으면 읽혀' 이런 식으로.

Bm: 주변 엄마들한테 사야 될, 꼭 있어야 될 책 같은 거 물어봐서 사고……. 엄마들이 철학동화, 전래동화, 무슨 백과사전, 분야별로 해서 다 구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깐. 어떤 엄마들은 만화로라도 읽어서 독서 많이 하고 그럼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엄마는 또 만화를 읽히지 말래요.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만화… 학습적인 거니까 그냥 보여줬었는데 크고 나니까 부작용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런가 싶더라고요.

Dm: 책이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읽는다는 책들을 보고, 서평 같은 것을 보거든요. 어머니들이 블로그 같은데 많이 올리시거든요. 주변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의견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Fm: 인터넷을 검색해서 책 후기 있잖아요. '이 책이 좋다', '별로다' 하는 엄마들 의견이 있잖아요. 또 친구네 집 많이 가잖아요. 그 집 책이 뭐가 있는 지를 봐요. 그 엄마한테 책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 '나쁘다' 평이 있잖아요.

Em: 이 동네가 참 대단한 엄마들이 많아요. 놀이터에 나가 보면 '내가 애를 바보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고. 책에 대한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어떤 책은 어떻다', '이런 책은 지금 좋다',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책이 정보력이 좋더라' 이런 거. 분석까지 하는 엄마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정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XX카페' 들어가면 '이 책 샀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더라.' 요즘 엄마들은

너무 대단한 게,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책 앞장서부터 다 찍어 가지고 '이 책은 이래서 재미있고' 짝 올려요. 그러면 그 설명이랑 다 봐요. 부지런한 엄마들 많아요. (중략) (친구네들 집에서) 중복되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서로 다 읽을 때까지 돌려봐요. OO네 엄마도 '우리 애가 이 책을 잘 읽고 재미있어 하더라, 좋다, 이 책은 꼭 읽히면 좋겠다' 그러면, XX네 엄마가 '살까?' 그러면, '좀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빌려 줄게'.

Hm: XX네한테는 제가 여기(도서대여업체)서 이용한다는 말을 안 해서. 굳이 말 안 했어요. XX엄마가 저 되게 열심히 책 읽히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조용히 혼자 다니고 있어요.

(2) 업체 직원

또 한편으로는 전집류를 개발, 판매하는 출판사나 대여업체의 직원이 어머니의 책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이들의 상업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유용 도서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었다.

Cm: XX 영업사원,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책을 권해주시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책에 대해 궁금한 거나, 사기 전에 먼저 보고 싶어서 몇 권을 들고 오시라고 해서 보고, 그리고 상담할 동안 아이 앞에 던져주면 아이 반응 봐서 선택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쉽게 계약서 쓰니까 좋아하죠. 정가 주고 제대로 사서 회원이 딱 돼야지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했고, XX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할인해 주는 사원을 알게 돼서 좀 싸게, 두세 질을 사면 한 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식으로. OO 같은 경우도 정가를 주지만 선생님이 수업 책을 너무 활용을 잘해 주더라고요.

Dm: 주변에 파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반응 어떠냐고 물어봐서……. 전집류를 전체 다 총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인 많이 해주신 다든가, 오래 구입을 하면 싸게도 해주고 해서.

Fm: 단골 서점이 딱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사장님이 되게 많이 알잖아요. 몇 질 추천을 해요. 문자 서비스도 와요. 내용은 '세일한다', '새로운 책이 왔다'. 방문을 해서 내가 이리이러한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6세다. 어떤 걸 보충해주는 것이 좋을까?'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 사장님이 『달팽이 과학동화』

있으니까 (다른 건) 굳이 넣어줄 필요 없고, 좀 더 고학년 되어서 다른 과학책 넣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고 말씀하면, 그런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어린이 책 전문서점은 그 사람이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나이 때에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대형서점 같은 경우는,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어린이 책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 어디 있어요' 대답하는 수준이지, 이 책은 좋고, 이 책은 그 아이 나이에 맞고 이런 말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Gm: 전집 파는 분들은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집은 숲이고 단행본은 나무'라고.

2. 어떤 그림책을, 왜 선택하는가?

1) 유아, 어머니, 아버지의 선호도서 차이

이 사례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각자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5권을 순서대로 꼽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유아-어머니, 유아-아버지, 아버지-어머니의 선호 그림책과 그 이유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들은 '애가 읽어달라니까 읽어주지,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책은 없다'거나, 집안을 둘러볼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특별히 기억나는 책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선호하는 유아의 그림책은 유아 스스로가 선호하는 그림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와 부모가 선호하는 소장 도서는 각기 다르며, 선호 이유도 달랐다. 유아들은 예외 없이 책 내용의 흥미를 특정 그림책의 선호 이유로 보고했고, 주인공 특성과 독자로서의 자신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선호도에는 도덕적 교훈이나 정보 전달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책의 편집 수준, 작가 및 출판사의 인지도, 수상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와 성인이 그림책의 독자로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과 달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하였다. 본인이 골라주는 책을 딸이 늘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Gm은 아래처럼 말했지만, G는 엄마 쪽을 힐끔 보며 조용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골라주는 책은 재미없을 때 많아요. (책 빌리는 가게에) 따라 갈 때만 내가 보고 싶은 책 볼 수 있어요.'

Gm: 키즈렌탈에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읽으라고 하면 어떨 때는 정말 갓난아이들이 읽는 팝업북을 봐요. 그것도 휴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보는 건

허용하긴 해요 어떤 엄마가 쓴 블로그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너무 공감을 한 거예요. '쉬운 책을 보면 휴식을 갖고, 어려운 수준의 책을 보면 지식을 얻고'.

A : 도롱이가 먹힌 다음에요, 꼬리를 찾을 때 재밌었어요 ('도롱이의 꼬리', 선호 이유).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오래 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편지 왔어요 편지!', 선호 이유).

B : 너무 재밌어요 ('틀러씨', 선호 이유). 나도 용감해지고 싶어요 ('용감씨', 선호 이유).

C : 인어공주가 제일 예뻐서요. 한 스무 번 봤어요 ('인어공주', 선호 이유). 예뻐서요. 공주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공주 좋아했어요 ('백설공주', 선호 이유).

E : 엄청 웃긴 그림이 나와요 (직접 재미있는 장면을 펼쳐 보여주며, '코딱지 대장 코파', 선호 이유). 재미있어요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 중 '전깃줄 속으로 들어가다', 선호 이유).

Bm: 이런 그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말장난. 저희 어른들이 보기엔 쪼끔 그런데, 재미나 봐요. 저희가 보기엔 책도 좀 너무 허접하고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팝업책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보고 요즘에는 관심사가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남자애들처럼 공룡을 좋아해요 『한반도 공룡』. 공주시리즈나 학습만화 시리즈도 좋아하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많이 골라오는 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봤는데 다 못 본 책을 도서관 가서 또 빌려보고 그래요. 어떤 책은 저는 재미가 없는데 그냥 애가 읽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게 되고.

Fm: 처음엔, 좀 안 맞았어요. '수학동화도 읽어라, 자연탐험도 읽어라' 이랬더니 아이가 싫어하니까, 아이의 구미에 맞는 책을 골라주게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날은 '엄마, 이 책은 재미없어서 오늘은 안 읽고 싶어, 내가 다른 걸로 골라올게.'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위주로 사주는 게 맞는 건지. 피곤하고 그럴 땐 글자 많은 건 싫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읽어 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늘은 동생이 우는데, 다른 거 글씨 적은 걸로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하면 나름 착해서 바뀌어서 가져오기도 해요.

2) 전집 선호 경향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단행본 그림책에 비해 전집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연구자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다. 일 년에 두세 '질' 정도의 책을 항상 전집으로

구매했다는 어머니(Fm)는 '날권은 사주지도 않았고,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전집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이들은 '철학동화', '과학동화', '위인전', '역사책'과 같은 전집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종류가 어린이책의 장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창작동화'라는 독특한 표현을 일반화시켜 사용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날권별로 작가가 있는 그림책을 모아놓은 전집을 창작동화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즉, 창작동화는 출판사 편집부의 기획에 따라 제작되어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날권별로 따로 제시되지 않는 책이나, 수학, 과학 등 특정 교과영역에 초점을 둔 시리즈를 제외한 이야기책을 일컫는 장르로 통용되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단행본 그림책에 비해 전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전집을 사다보니까 책을 그렇게 자주 살 필요는 없더라'(Dm)는 경우처럼, 선택의 용이함이나 경제성이 주요 이유로 꼽혔고, 그밖에 자녀의 연령과 독서습관 고려, 주변 어머니들의 추천, 그들과의 경쟁심리,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 등을 그 이유로 추출할 수 있었다.

Am: 원래는 단행본으로 제가 거의 매일 XX문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평보고 골라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엄마들은 질로 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휙쓸려가지고. 전집이 딱 들어 온 순간, 읽혀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샀는데 애가 안 읽으니까 무조건 '다섯 권씩 갖고와봐!' 계속 빨리 읽고 돌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Bm: 단행본은 도서관 그냥 활용하고, 거의 전집으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 파시는 분 따라 많이 틀리더라고요. 전화하면 금액이 얼마다, 몇 프로정도 해준다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AS받을 게 있잖아요. 책이 증간될 수가 있잖아요. 13권짜리가 15권으로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두 권은 제가 나중에 살 수가 있어요.

Cm: 저는 책방에서 한 권씩 사는 것보다는 전집으로 사주고 OO이 성향이 자기 소유가 되면 자꾸 반복을 해서 보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여러 권을 읽기 때문에 책방에서 몇 권 사는 걸로는 성에 안차서 그냥 전집으로 사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어떤 전집은 3일 안에 다 읽더라고요. 저는 책이 새로 오면 꽂아놓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놓거든요. 다 읽으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찢끔찢끔 사줄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버릇을 그렇게 들었죠. 단행본이 별로다가 아니라. 그리고 전집으로 하면 훨씬 더 싸고 또 그 안에 무슨 '영역' 해서 골고루 줄 수 있고. 또 제가 책을 고르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단행본 중에서) 무슨 상 받았

다는 건 우선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골고루 주고 싶을 때,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유명한 전집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 아는. 그런 건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쉽고.

Gm: 전집을 사 놓으면 빨리 읽혀야 할 것 같아서 많이 읽히는 거죠. 1년 안에 70%, 몇 년이 지나면 50%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루에 목표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아파도 꼭 참고 읽어주는 거예요. 전집을 살 때는 또 단가가 크니까. 엄마도 목표치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단행본은 한두 권 사오다 보니까, 오늘 한 권 읽고, 내일 한 권 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전집을 선호하고, 제가 루즈해질 때, 조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단행본은 어설픈게 사주는 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6세 이상 넘어가니까 자꾸 새로운 걸 읽기를 원하니까, 전집은 1권 읽고 나서 6권을 읽을 줄 되면 앞쪽에 읽은 거는 가물가물하니까 또 읽게 되는데, 단행본은 몇 번 읽게 되면 싫증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전집 6권이 다 맘에 들지는 않아요. 두 권 값이 단행본 한 권 값이니까, 내가 30권만 만족을 해도……. 그리고 괜찮은 전집을 사면 10권 정도나 싫어할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을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중고로 팔기 위해서. 계속 새 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책만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도 보내야하니까. (중략) 엄마가 부지런하게 매일 서점가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한 권 한 권이 쌓여서 과연 전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전집이 있으면, 5권을 오늘 읽었으면, 다음에 6권을 읽고 싶어 하고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전집이 책이 더 많이 읽혀지더라고요, 양으로.

Hm: 있어야 된다는 위인전 한 질, 자연과학 한 질, 이런 정도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훑어보는 창작동화랑은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교육하고도 연관될 것 같아요.

Im : 위인전이나 과학책 이런 거는 구매할 의사가 있어요. 역사책 같은 거요. 그걸 읽음으로서 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거는 인터넷 잠깐 찾고 뭐 잠깐 몇 권 빌려보고 이래서는 안 될 거 같아요. 1권부터 50권까지 꼭 있어야 연도별로 라인별로 있어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3) 학습 매체로서의 그림책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책을 마련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책이 학령기 이후 학습에 미칠 영향력을 꼽았다. '책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보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만나고 또 재밌고, 그리고 더불어 또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도 있다면 그것도 알파죠.'라고 말한 어머니(Em)의 경우가 예외적이었다. 그림책이 독서를 위한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에 따라 도서 '공급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Bm: 사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필요할 때는 찾아봐야 되니까. 부모가 다 설명 해줄 수도 없고 요즘은 분야별로 수학동화 같은 경우도 수 개념을 쉽게 쉽게 애들한테 접근 하게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개념 자체를 잡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이에 대한 거랑 넓이에 대한 것도 참 비유를 잘 해갖고 애들 머리에 속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Cm: 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수업보다는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더 좋을 거 같고, (돌봐야 할) 동생도 있고 하나까 선생님 여러분이 오셨었어요. 1주일 동안 두 권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지를 풀어 놓고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식의 수업인데, 그걸 활용하면 책을 좀 더 깊게 다 확인할 수 있을 거 같고. 홈스쿨링 같이 하는 거죠. 독후활동 할 수 있도록 책 뒤에 다 되어 있어요. 눈술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독서에 관련된 게 교육 쪽으로 중요하다는 거는 어머님들은 다 알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독서를 기반으로 스스로. 요즘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책읽기로 판가름이, 얼마큼 읽었느냐에 따라서. 또 책을 통해서 집중력도 굉장히 크잖아요.

Fm: 요즘은 학습지에서 그것도 해요. 일주일에 책 세 권을 줄 테니까, A4 용지 한 장 쓰고, 책은 우리가 갖는 거고. '1번, 인물들이 어떤 사이였나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즘 유행이거든요. 와서 꼬시죠. '이런 것도 준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책이다.'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월 2만 4천원에 책 세 권이라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이걸 해야 될까 마음이 들었던 게, 6세 목록, 7세 목록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Gm: 일단 책을 보는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 앉아있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한 치맛바람 하셔가지고 그렇게 책을 많이 사주셨는데도 안 읽어주셔서 제가 책을 정말 하나도 안 읽었었어요. 안 읽으니까 언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걸 공부해도 이해하는 것도 늦고, 외우는 속도도 처

지더라고요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남들보다 몇 시간을 더 해도 학습 효과가 작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책을 다른 친구들보다 안 읽었구나' 하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것만은 꼭 해주겠다 생각했죠. 살아가면서 모든 게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시험을 봐도, 교육 과정이 수학이라고 연산이 다가 아니라, 언어로 하게끔. 이 동네는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영어는 웬만하면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국어싸움이더라고요.

Hm: 비교 쉬운 예가 제 친정언니거든요. 언니는 책을 막 질로 사고 정말 벽 한 칸 채우더라고요. 같은 나이거든요, 애 둘이. 정말 수준 차이가 나요. 개는 밥 먹으면 서도 막 책 보고 시험 전날까지도 '책 안 덮어? 공부해야지!'해도 시험 보면 98점! '아, 책 밖에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제가 너무 절실히 느껴서. 100% 독서밖에 없다는 거를. 수학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어예요. 큰 애도 덧셈, 뺄셈은 잘 하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위인전이나 과학책은) 재미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나중에 찾아보고 할 때.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도서관까지 그 한권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애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바로 얻게 해 줘야 기억에 확 남으니까.

3. 그림책 읽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일상화된 그림책 읽어주기

모든 참여 가정에서 주로 자기 전의 시간을 이용해 유아에게 그림책을 정기적으로 읽어주고 있었다. 매번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는 역할은 주로 유아들이 맡지만, 이 과정에는 어머니의 의지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을 책의 분량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유아 간에 협상이 이루어짐이 발견되었다. 즉, 책의 구매나 대여시에 유아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것과 달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읽을 책의 선택 면에서는 유아들이 비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아는 더 많이 읽고 싶어 하는 반면, 어머니는 15-30분 이내에 평균 3권 정도만 읽어주려 하기 때문에, '그만 읽고 자자'는 설득이 동반된다.

Am: 자기 전에 같이 누워서 봐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재우려고요. '한 권만 더 읽어주면 안 돼?' '안 돼! 자!' 그렇게 되죠. 자기보고 골라 갖고 오라고 그러죠. 너덜너덜 해가지고 불일 정도 된 책 가져오면 '그런 거 말고 요즘 책 다섯 권 씩 갖고 와라' 그러죠.

Cm: 유일하게 제가 제지할 때는 정말 얘기 때 읽은 책인데 그걸 읽어달라고 할 때. '엄마 지금 책 읽어주는 책이 게 할 거야. 책 갖고 오세요. 둘 다'하면 그때 자기가

읽고 싶은 연령에 맞는 책을 갖고 봐야 하는데 정말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도 다 읽을 수 있고 다 외워진 책인데 읽어달라고 할 때는 제지를 해요.

Dm: 책을 안 읽어주면 자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침대 옆에 책이 쌓여져 있어요. 자기 전에 책을 읽음으로써, 좋은 생각을 하게 해줄려고……. 자기 좋아하는 책 두 권 고르고, 제가 두 권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하루 평균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 주말 같은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자기 전에 읽었던 책들 다시 읽는 적도 있어요.

Em: 잘 준비 다 하고 양치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책부터 골라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Fm: 여덟시부터 아홉시까지 책 읽으면서 놀고 볼을 꺼요. (읽는 시간이) 조금 주는 거 같아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 힘드니까 다섯 권만 가지고 와' 그러면 한 권만 더 가져오면 안 되냐고 그러죠. 애가 고를 때도 있고, 저보고 골라오라고 하기도 해요.

Gm: 제일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기 전.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책을 읽는 거에 투자를 하고. 보통 다섯 권 읽죠, 무슨 일이 있든. 한 삼십 분 넘게 걸리는 거 같아요.

Hm: 자기 전에 삼십 분 정도 꼭 읽어주려 해요. 딱 펼쳐봐요. 그림을 보든, 자기 제목을 읽든. 빌려온 것 중에 '여기서만 골라' 그렇게 하니까.

Im: 침대 두 개 붙여놓고 양 사이드에 아이들 놓고 제가 가운데서 읽어주고 아빠도 듣고 잘 때 읽어주는 책은 둘째에 기준을 맞춰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잠들 때까지 읽어줘요. 보통 큰 애가 두 권, 작은 애가 두 권씩 가져올 때도 있고요.

반면, 아버지의 참여도는 어머니에 비해 극히 낮아, 아버지들이 그림책의 선택과 공급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도 별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애 엄마가 읽어준다'(Cf, Gf)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참여 자체도 적지만, '읽어주면 재미없어서 그림이나 사진만 보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함께 논다'(Df)는 응답에서처럼 참여하는 경우에도 상호작용의 질이 어머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비록 그림책의 선택과 공급에는 기여한 바가 없지만 유아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한 가정(Ff)의 경우, 어머니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아버지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 엄마랑 봐요. 아빠는 너무 바빠서 못해요.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바쁘신데요, 그래도 (아빠는) 안 읽어주세요. 엄마만 잘 읽어줘요. 둘 다 좋은데 엄마가 (읽어주

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Em: 아빠는 별 관여를 안 해요. 가끔 읽어는 주는데 그 대신 '너무 긴 책은 가져오지 마'라고 해요. XX이가 알아요. 이 책은 엄마는 읽어주지만, 아빠는 안 읽어줄만한 책들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읽어줄만한 책만 골라 와요.

Gm: 저는 전집을 좋아하니까 전집 읽어야할 목표량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책을 빌려오면 한 권 이리니까 내일까지 반납은 해야 하고 읽히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빠는 굉장히 건성으로 읽어주죠. 좀 의성어, 의태어도 살려줘서 읽어야 하는데,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톤도 중요하고요.

Hm: 가끔 아빠가 읽어주는 거 들어보면 내가 들어도 '참 억지로 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Im: 빌려오면 아빠는 한 번이나 두 번 읽어주실까? 아빠로서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하는데 안 읽어줄 수도 없고……. (먼저) '갖고 와라. 읽어주겠다.' 이걸 아니 구요. 가끔은 아빠가 읽어주면 저도 듣는데, 이상해요. 진짜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요.

Fm: 제가 임신했거나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는요, 엄마가 읽어줄 때 보다는 재밌게 읽어요. '(목소리 바꿔서) 야, 토끼가 왔어'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엄마는 가사에 지쳐서 힘들고 둘째가 생기니까 '빨리 책 읽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가 읽어줄 때는 '이 줄은 니가 읽어봐, 다음 줄은 아빠가 읽어볼게, 거꾸로도 읽어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아빠가 읽어주는 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2) 어머니의 책임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책이 풍부한 환경을 구성해주시지 못하는 미안함과,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본인이 힘들어도 책을 많이 읽어주어야만 한다는 의무감 내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동이 일상화된 이면에는 책을 읽는 즐거움이나 습관보다는 책임감이 존재한다. '아이에게 책을 읽고 유도하고 심어주는 것은 엄마의 기준인 거 같'다는 Fm의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향후의 그림책 활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계획도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책을 언제 구입해주어야 할지, 가정의 독서환경은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포함되었다. 이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실제화하기 위한 개인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Am: 애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못 해주죠 사주기는 해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을 여러 권을 읽어주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방학숙제가 하루 세 가지 약속 지키고 색칠하기 그런 게 있는데, 약속 하나를 '책 스무 권 읽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애는 방학이지만 저는 방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 권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죠. 책은 읽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가 못 따라가죠. 나중에 책 읽기 싫어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Bm: 제가 보니까 다 엄마들이 하기 나름이라, 엄마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습관을 잡아주는 것 자체도 진짜 엄마의 힘이 크다는 게……. 맛벌이 엄마들은 조금, 애한테 시간 할애를 많이 못하잖아요.

Em: (아이가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엄마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 하다가도 책 읽어 달라고 하면 하던 일 멈추고 책을 읽어 줬거든요. 엄마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밤에 '엄마 나 책 읽어주세요' 할 때 어떤 때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읽어 달라는 걸까?' 아니면, '내가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걸까?'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저는 책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Hm: (대여업체에) 매일 가려고 노력을 해요. 엄마의 부지런함이 조금 있어야 되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읽어 주는 거죠. 솔직하게 너와 나,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별로구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할애한다. 제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짜증이나죠. 한권 더 읽어 달라고 하면 그냥 자자고 하기도 하고. 체력이 되면 더 읽어 주고 싶기도 한데 목도 아파지고, 너무 졸려지고.

Im: 저는 서비스라기보다 의무감인거 같아요. 의무로 읽어 주는 거고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애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옷 빨아주고 밥 해 주는 거는 생활인거고. 학습적인 면은 저녁숙제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책 읽는 거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덤고 이래도 유모차 갖고 (대여업체에) 가는 거예요.

Am: 저건 『꼬마 과학자』 시리즈인데 지금 읽어주지 않으면 시시해질 것 같아서 빨리 읽어주고 처분하려고. 일학년 쯤 넘어가면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일학년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거 들여야죠.

Cm: 아이 연령에 따라 출판사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XX쪽이 교과서랑 맞게 단계별로 연결이 돼서 초등

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 좀 보고 있어요. 딱 그때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다섯 살 이전에는 전래랑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창작이나 자연관찰 책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명작이나 전래, 이런 거 읽어줘야 되는 거, 입학 준비에 필요한 그런 류의 책, 세계 문화 영역 같은 거나…….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림이었고, 그 담에는 한 34세 지나니까 어느 정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글밥을 봤죠. 글밥이 너무 많지 않은지. 지금은 내용을 조금 더 봐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중략)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책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서재로 꾸민 거실) 이 공간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잘 안가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좀 더 봤으면 하는 책은 그런 공간에 넣고, 이 책은 좀 그만 봤으면 하면 환경을 바꿔주고. 지금은 영역별로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도서관 활동을 하는데 영역별로 한다고 그러서요. 과학영역, 사회영역 이런 식으로.

Fm: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창작 위주로 읽어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전래를 읽히고, 명작은 그림책으로 사지 말자'. 이게 제가 책을 구입하는 기준이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명작을 먼저 그림책으로 읽어버리면 전래를 잘 안볼 것 같아요.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그림책을 읽는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가운데, 어머니와 유아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연령에 맞게 내용을 추려 요약해 주기,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 질문하고 대답하기, 책을 이용해 놀이하기, 읽은 책에 대해 보상하기, 감상 나누기, 번갈아 읽기 등의 방식이 이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 유아들이 만 5세인 현재, 어머니들은 그림책에 제시된 문장 그대로를 읽어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글을 익히는 단계이므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바뀌 읽으면 아이가 눈치 채고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더 집중하라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즉, 책에 쓰여 있는 문장 그대로를 읽어주는 역할만 하고, 감상을 나누거나 대화를 유도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았다. 읽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그림책의 '독자인 어머니가 아닌 '낭독자'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인상적인 것은 어머니들의 그림책 읽기 행동에 자녀의 취향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읽으면 아이가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어야 아이가 좋아하니까'와 같이, 어머니와 유아의 반복적인 함께 읽기에서 비롯된 상호작용행동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작가 책이 특히 뭘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애한테 뭔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딱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Am)라는 발화는 어머니가 그림책을 충분히 이해해야 유아의 이해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m: 그림만 보면 애가 불만을, ‘왜 이걸 안 읽어?’하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가지는 못하고요, 피곤한 날은 몇 문장씩 빼고, 좀 기운이 나는 날이면 막 설명해주고 모르는 단어 얘기도 해 주고 그런데 읽고 나서 ‘나는 이랬어, 너는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와, 나는 이랬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땠을 것 같애?’이러면 ‘몰라, 빨리 다음 책 읽어’ 이런 식? 읽어주고 더 이상 물어보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글씨, 자기는 그림 보면서 얘길 듣고 뭐 이런 것 같아요.

Bm: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읽어주고 처음엔 책을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지루하잖아요. 빨리 넘기고 싶다는 식으로 애가 표현을 해요. 그림만 보고 짧게 보고 넘기는 식으로 짧게 꼭 해야 될 말들만. ‘여기는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애가 뭐라고 하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Cm: 요즘은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집에서 관련된 책을 다 찾아서……. ‘나 여기서도 봤어’ 이런 식으로 찾아서 활용하게끔. 어떨 때는 아이가 책에 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닥에다 책 깔아서 장판놀이 하고 그 위에 이불 베개 놓고 둘이 같이 자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얘기했을 때는 제가 선택을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계속 그림 보여주고, 읽을 때는 그 주위에 책 깔아놓고 점점 커가면서 반반 되다가 지금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다 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책 읽게끔 하려고 스티커 붙이기. 자기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 자체로도 상이 된 것 같아요. (중략) 읽어주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활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도 이해할 수 있고.

Dm: 표지 그림에 대한 저의 느낌을 먼저 이야기하고, XX에게 어졌냐고 물어봐요. 넘겨서는 그대로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르게 읽어주면 그 내용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 같기도 해서요. 쓴 사람도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서. (유아가) 질문은 싫어해요. 빨리 그 내용을 읽어달라고 하는 식이라서. 짚어 주는 것도 싫어해요. 글자를. 제가

글씨를 읽을 때 그림을 정말 열심히 봐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까지 저에게 알려주거든요. 제가 공감하고 웃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일부러 그림을 많이 이야기 안 해요. 글자를 지금 배울 시기라서, 더군다나. ‘엄마 생각은 이리이러해’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느끼고 이야기 할 시기가 되면 이야기하겠지 하면서 지금은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는 편이에요.

Em: 가끔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읽어요. 너무 피곤해서 ‘한 페이지씩 읽을까?’해서 읽다가 자기 부분이 길면 막 화내고, 짧은 페이지 읽게 되면 좋아하고. 거의 엄마가 읽어 줘요. 될 수 있으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받아들이는 게 요만큼이라면 그만큼에서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고, 책을 자기가 바라보아야지. 내가 만약 부연설명을 해주면 내가 바라보는 거지, 애 눈은 아닐 것 같아요. 느끼는 것도 애 느낌으로 알아야지. 내가 만약에 설명해주고 어찌고저찌고 하면 내가 읽은 책이고, 내 느낌이지, 애 느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모르는 걸 물어 봤을 때는 설명해줘요.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려고 해요. 다 읽고 나서 물어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알더라고요. ‘이 책 한 번도 안 읽은 거 같애’하면 애는 ‘저번에 읽었어. 이걸 이런 거야’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니까 내 기준으로 막 안하는 게 나온 거 같아요.

Fm: 아이가 한글을 깨우치니까 읽다가 어떤 것을 빼먹으면, ‘엄마 이거 안 읽어줬어요.’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요.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다 읽어주지 그것을 빼먹거나 추려서 읽어주지 말라고,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딱할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과장해서 ‘어흥’ 해주지는 않고요. 어렸을 때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크니까 글씨를 안 다음부터는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 표현을 해 주죠. 한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무슨 뜻이야?’

Gm: 책을 파시는 분들은 꼭 1번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1권부터 차례대로 읽어요.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좋고요, 엄마 성격인 거 같아요. 저는 글자 그대로 다 읽어 주니까요, 장점이 아이가 틀린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가 책에 집중하고 있는지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바뀌어서, 요약해서 읽어주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엄마가 힘들 것도 같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서도 조사 같은 문법도 배우더라고요. 단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읽어줘요.

Hm : 일단 의태어와 의성어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다보니까 '살금살금', '성큼성큼' 이런 거는 두 번 정도 읽어주는 걸로 하고 나뭇 목소리도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빨간 머리소녀라는데 누구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일단 쪽 넘어가요. 저는 중간에 끊기는 게 싫어요. 일단 전체적인 이해가 중요할 것 같지. 단어는 커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자기가 질문을 하면 모를까?

Im : 저는 거의 바꾸는 거 없이 100% 그대로 읽어줘요. 책 내용이 원본이니까 그대로 읽어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책을 쪽 끝까지 읽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요.

4) 독립적인 독자로서의 변화 시기

만 5세인 참여 유아들 중에는 이미 한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9명중 7명). 이들 중에는 '한글 학습지를 따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깨우쳤다는 경우가 많아, 그림책 경험이 유아 문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드러내 주었다. 어머니들은 '유아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미 읽어주었던 책들이므로', 또는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느라 바쁘므로' 유아가 책을 혼자 읽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아들도 혼자서 그림책을 보는 경우가 많음을 스스로 보고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에 익숙하거나, 심지어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가 독립적인 독자로 발달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 엄마가 샤워할 때, 아빠도 볼만 있을 때(책 읽어주기 싫다고 하실 때) 혼자 볼 때도 있어요.

B : 엄마랑 아빠 다 잘 안 읽어줘요 계속 혼자 읽고 싶어요. 혼자 읽는 게 좋아요.

Bm : 집에서 읽어줄 때는 자기가 이제는 거의 본 책이라서 혼자서 봐요 새로운 책 이런 거는 읽어 달라 그래요

C : 주로 혼자 읽어요. 엄마는 잘 안 읽어주세요. 아빠도 잘 안 읽어주세요.

Cm : 요즘은 한창 책이 뜬해져요. 왜냐하면 지가 글씨를 아니까, 동생도 책을 읽어줘야 하는데 둘이 있으면 같이 읽어달라고 하면 "너는 읽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읽어."하면 흥미가 조금 떨어지고 동생은 계속 읽어 주니까.

5) 독자로서의 어머니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주체인 어머니들은 스스로 그

림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래의 응답 내용은 성인(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이 분명히 그림책의 독자임을 보여 준다. 어머니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즐거움을 이해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며, 내용에서 지식을 얻고, 기발한 구성이나 창의적인 표현기법에 감탄하며, 정서적 반응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서 특별히 선호하는 그림책이나 출판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는 이중독자로서 함께 그림책을 본다.

Am : (그림책은)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애들 그림이라고 해서 그냥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작가들이 한 거잖아요. 그림 좋은 건 엄마들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한국화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떤 책들은 무슨 팝아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참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구름빵'이요. 그림이 평이하지 않고 입체적이면서 질감, 그림 사이에 사진처럼 그런 부분들이 재밌더라고요. 이야기가 단순해도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은 아주 재밌었어요. 아이가 좋아해서랑 별개로 저도 좋았어요.

Bm : 어떤 책은 캐릭터가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어머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하는. 제 생각에는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걸 읽을 때가 있어요.

Cm : 어린이책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싫어하는 걸 만일 가져왔으면 몸이 좀 피곤하거나 할 때는 읽어주는 게 싫을 경우가 있어요. 아이 책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시리즈 중에 제가 발견해 낸 거죠. 읽다보면 아이가 좋아해서, '왜 좋아할까?' 하다가, '엄마도 좋아' 그렇게..... 내용이 잔잔한 어떤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든지, 유아책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좋은 거 같아요.

Dm : 일본 책은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소한 건데, 사소한 걸 관찰해서 그것을 책으로 써 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Fm : 그림이 조금 선명하고..... 사실 출판사를 조금 봐요 이름 없는 출판사들 거는 안사거든요. 생명의 소중함, 사랑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연, 가족의 소중함 그런 내용 담겨 있는 걸 제가 사실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니까, 또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책이 맞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엄마들도 밤에 책을 읽잖아요. 그 책보다 (아이들 그림책이) 진짜 재미있어요.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그림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Gm : 요즘 피곤해서 책이 잘 안 들어오는데, 가사도 힘들고

요, 근데 그림책은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쓱쓱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도 읽어주지만 저도 거기서 많은 지식과 재미를 얻는 거예요. 또 아이들 그림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이들 그림책 읽혀주다 보니까 엄마들이 더 빠지는 거 같아요. 요즘 책이 너무 잘 나와서.

Hm: 제가 봐도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거의 어른 수준의 책도 많은 거 같아요.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구나.' 저희 수준 때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책을 제가 재미있어 하면 애도 재미있어 해요. 출판사에 따라 재미있게 쓰는 데가 있고, 짜임새 있는 것도 있고, 영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출판사를 보는 거 같아요. 출판사를 보고 고른 건 아닌데 읽다가 출판사를 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책을 딱 덮고 '참 재미있더라'는 내 느낌을 제일 중요시해요. 일단 책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Im : 그림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 같기도 하구요. 또 표현기법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구요. 구어체도 많이 쓰고, 어떤 책은 굉장히 명료하다고 하나? 제목도 특이하고 '강아지똥' 같은 거. 전 그림이 좋은 책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책을 고를 때) 앞부분 보구 전체적 그림을 좀 봐요. 「구름빵」이나 「눈사람아저씨」같은 거는 내용이 심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구름빵」은 4~5번 봤는데 내용도 간단하고 그 책은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아홉 가정의 만 5세 유아,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문해환경 관찰을 실시한 사례연구로서, 유아용 그림책의 이용 과정에서 유아와 성인이 이중독자로 기능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그림책을 구매하거나 대여하기 위해 선택을 할 때, 아버지와 유아는 배제되고 어머니가 온라인 서점, 중고 도서 유통 웹사이트, 도서관 및 대여업체 등을 통해 책을 구매한다. 또한 주변 어머니들과 도서 업체 직원이 어머니의 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3의 성인이다.

이 결과는 부모들이 유아용 그림책을 구매하기 위해 얻는 정보의 통로가 다양한 가운데 이웃, 친척, 친구 등 대인적 의사소통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지적(김규연, 1999; 김숙령·육길나, 2007; 박찬수, 1997; 이영숙·신유림, 2006)과 일치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수용하는 대상이 부모에서 아버지를 뺀

어머니이며, 상업적인 도서 사업자가 중요한 정보제공자에 포함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강조되었다고 하겠다. 부모들은 유아문학이나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고(박찬수, 1997), 비록 미디어나 지인들로부터 유아용 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유아 도서 중에서 스스로 좋은 책을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여 권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권미은·신현기, 2008; 노진형·김은주, 2009). 이러한 상황은 부모들에게 유아문학과 책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도움을 줄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자녀를 위한 책에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들을 그림책의 성인독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림책의 제1독자인 유아가 보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지 못하는 상황에도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구매결정권 자체가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규연(199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아도서 구입 동기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자녀가 원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주의의 권유로' 구입하는 경우보다도 적은 극소수였다고 한다. 즉, 그림책의 구매 단계에서 유아에 비해 성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영유아기의 독자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는 일이 일반화되었고, 책에 대한 선호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는 지적(Mohr, 2006)과 상충된다.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을 때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며(Palmer et al., 1994), 읽을 책의 종류, 수준, 책에서 얻고자하는 아이디어 등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읽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된다(Olhausen & Jepsen, 1992). 따라서 책에 대한 선호와 일생동안 지속될 읽기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Kragler, 2000).

둘째, 유아와 부모는 각기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그림책을 선호한다. 유아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좋아하지만, 어머니들은 선택의 용이함, 경제성, 자녀의 연령과 독서습관, 주변 어머니들과의 경쟁심리,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단행본 그림책에 비해 전집을 구매하고, 책이 학령기 이후 학습에 미칠 영향력 때문에 자녀에게 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유아들은 읽기발달 단계상의 특성상, '그림만 보고' 그림책을 선택할 만큼 그림에 주의를 기울이고(김석진, 2001; 김정화, 2009; 전효훈, 2000; 차은영, 2003), 장르와 상관없이 문학적 요소 중 인물에 큰 반응을 보인다(강은진·현은자, 1998; 김양선, 1997; 현은자·김세희, 1996)는 점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위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골라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녀가 반복적으로 흥미를 보이는 책을 배제하는 대신, 학습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구성된 전집류에 집착을 보인다. 뒤에서 논의하겠지

만 '독자로서의 어머니'를 두고 본다면, 이 연구는 어머니 본인이 선호하는, 즉, 즐기는 그림책과 자녀를 위해 실제로 구매하는 책이 다르다는 점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유아와 어머니 모두, 선호하는 책과 구매하게 되는 책이 분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부모가 그림책을 구매할 때, 자녀의 요구와 관심이 책의 내용과 함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연구결과(이영숙·신유림, 2006; Anderson et al., 2001; Owens, 1992; Robinson, 1983)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책을 사주는 이유를 선택지 중에서 골랐을 때와, 면접을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의 차이로 해석된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단행본보다 전집으로 그림책을 구입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졌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심포지엄에서 아동전집의 출판과 유통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불분명하거나, 작가들의 창작열을 기획이라는 틀로 제한하고, 외국 도서를 불법적 경로로 출판하는 사례까지 보고되었다(오세란, 2010). 전집의 비정상적인 유통과정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과장된 광고가 흔하며, 자주 개정판이 나와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실태 보고(박은경, 2010)는 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전집 관련 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어머니들의 정보 공유와 다독 경쟁이 치열한 수준이라고 하니(여을환, 2010; 은미영, 2010), 이 연구의 참여자들을 특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들이 전집도서 위주로 책을 구입하는 경향은 자녀의 성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과 분명히 연관된다. 노진형과 김은주(2009)도 그림책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어머니들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학습의 소품으로 여기고 문학의 힘은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유통되는 전집에 포함된 각 권을 분석한 결과, 수준이 중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어린이도서연구회, 2010), 유아들이 양적 공세에 의해 질적으로 우수한 그림책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가정의 전집도서 구매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유아 그림책에 대한 추후연구에서는 목적에 따라 단행본 그림책과 전집류 그림책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경우 유아의 언어표현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김숙령·육길나, 2007)는 어머니의 문해신념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한다. 영유아기부터 다양한 문학작품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기 전의 시간을 이용해 유아에게 그림책을 정기적으로 읽어주는데,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강한 책임감에 반해, 아버지들의 참여도는 극히 낮다. 어머니와 유아 간에는 읽을 책을 선정하고 읽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만 5세 유아들은 점차 독립적인 독자로 변해가는

시기이고, 어머니들은 그림책을 감상하고 즐기는 성인 독자의 역할도 한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 연구들(김숙령·육길나, 2007; 박상희, 2008; 이영숙·신유림, 2006)의 자료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들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원할 때나 자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하루 평균 10~30분 동안 1-4권의 그림책을 읽어주며,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주로 자녀에 의해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기가 어느 한 쪽에 의해 시작되기보다는 어머니와 유아 간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일과임이 드러났다. 그 반복적인 일과의 이면에서는 읽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따른 어머니의 '노력'과, 함께 읽기를 즐기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가 만나고 있다. 그림책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활용할 때도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결과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가정 밖의 일로 지나치게 바쁜 한국 아버지들의 일상과 양육을 어머니에게 주로 할당하는 분위기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의 문해활동에 아버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책을 처음 구매할 때에 비해 집에서 읽을 책을 고를 때는 유아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어머니가 골라 놓은 책의 범주 안에서는 유아의 선택권이 인정받는 셈이다. 유아의 '더 읽고 싶다'는 의견과 '그만 읽고 자라'는 어머니의 주장이 부딪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 많았다. 이는 Ian Falconer(2001)의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에 등장하는 올리비아가 밤에 함께 읽을 책의 권수를 두고 엄마와 벌이는 실랑이를 빼닮은 모습이다("오늘 밤에는 다섯 권만 읽어 주세요." "안 돼, 올리비아, 딱 한 권만이야." "네 권은요?" "두 권만." "세 권만요." "그래, 좋아. 세 권이다. 그걸로 끝이야!"). 참여자 어머니들의 호소처럼, 매일 밤 여러 권의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유아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유아들이 만 5세인 현재, 대부분 그림책의 문장 그대로를 읽어준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반응을 살피며 책을 읽는 속도, 억양, 목소리를 조절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방법이나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은 잘 몰라서 주로 단순하게 읽어주는 행동만 한다거나(노진형·김은주, 2009), 질문하면서 읽어주기, 내용을 요약설명하기, 그림을 설명하기 등에 비해 쓰여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가 많다는 지적(박상희, 2008)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위의 연구들에서처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인식과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전략의 변화도 이유로 보인다.

그림책 읽어주는 부모가 자녀와의 질적인 대화를 이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서정숙, 1999).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면서 상호작용하는 유형에 따라 유아의 반응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그림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유아도 그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예측이나 추론을 요구하면 유아도 동일한 반응을 시도한다(Roser & Martinez, 1985). 그림책을 읽어주는 성인이 책의 내용과 유아의 사전 경험을 연결시키고, 그림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안내하면, 유아는 그림책을 더 의미 있게 경험하게 된다(서정숙·남규, 2005). 유아 또한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아의 더 반응적이고 참여적일 때, 어머니 역시 책읽기 활동에 유아를 더 참여시킨다(Schneider & Hecht, 1995). 즉, 그림책을 함께 읽는 어머니와 유아는 서로에게 반응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진다. 그림책 읽어주는 연습이나 사전지식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성인이 그림책의 진정한 독자가 되어야 소화한 내용을 어린 독자에게 전달하거나 함께 나눌 수 있다. 자녀의 읽기 발달 단계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림책을 읽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만 5세 유아의 혼자서 그림책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요즘 우리나라 유아들의 실제적인 읽기 발달 단계상 혼자 읽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부모의 일과가 바빠서, 또는 혼자 읽기가 더 발전된 형태의 읽기 성취라고 여겨서 유아에게 독립적 독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와 함께 우수한 문학작품을 공유하는 것은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기여하는 일이며, 이는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취약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의 독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게 그림책을 사주고 읽어주는 주체인 어머니들은 특정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로부터 지식, 휴식 및 감동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책을 구매하여 자녀와 함께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독자일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연구들(노진형·김은주, 2009; Anderson 등, 2001)을 지지한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어떤 그림책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지, 유아 입장에서 볼 때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년 이상 그림책을 접해온 유아들이 아직 책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부모 중 어머니가 그림책의 선택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가 예술적, 문학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책을 이용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가정의 문해환경 및 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책의 이용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유아와 성인이 함께 그림책을 즐기는 이중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책의 이용에 나타난 이중독자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그림책의 선택과 활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인과 유아의 이중독자로 기능하는 가운데 어떤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수가 적은 사례연구의 특성상, 보다 다양한 양상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써, 그림책에 대한 아버지들의 무관심이 연구 초·중반에 문제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연구자는 사례를 확대하여 이를 보완해 줄 아버지를 추가 표집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연구 후반에는 이 현상이 오히려 유의한 결과로 드러나 임의적인 사례 확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맞벌이로 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이 많았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림책의 구매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비교 연구를 하거나, 양적 연구를 통해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는 그림책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부모 또는 출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 다룬 개념을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재·하정희(2000). 유치원 교사 추천 동화에 나타난 비교육적 요소. *열린유아교육연구*, 5(1), 141-162.
- 강은진·현은자(1998).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소집단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9(1), 169-182.
- 권기남(2000).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동화선호도: 낭만적, 폭력적 및 무서운 그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은·신현기(2008). 유아기 자녀의 장애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그림책 선정기준 비교 지적장애연구, 10(2), 123-143.
- 김경호(1993). 도서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연(1999). 한국 아동도서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윤정빈·지은주·유승희(2006).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그림책 선호경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91-318.
- 김석진(2001). 유아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육길나(2007). 어머니와 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현황 및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표현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0**, 73-94.
- 김양선(1997).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2009). 유아의 그림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17.
- 노진형·김은주(2009). 어머니의 유아용 도서 구입과 지도 및 그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8(1)**, 79-95.
- 대한출판문화협회(2010). 2009년 출판통계.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wr_id=103
- 박상희(2008).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3)**, 105-239.
- 박상희·김명화·천혜경(2008). 연령별 반복적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5)**, 115-139.
- 박유미(2008). 친사회적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7(1)**, 19-35.
- 박은경(2010). 아동전집의 소매가격 실태 조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4-21.
- 박찬수(1997). 유아 그림책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1999).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부모의 그림책 읽어주기. 서울: 창지사.
- 서정숙·남규(2005).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 어린이도서연구회(2010). 아동전집 출판 현황과 쟁점Ⅱ.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오세란(2010). 2010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심포지엄을 열면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4.
- 여울환(2010). 인터넷동호회의 전집 정보 유통과 독서문화2.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35-49.
- 유향선(1997). 유아 문어교육의 효과적 지도 : 그림책 중심과 학습지 중심 교수방법의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97-117.
- 윤진주(2009). 그림책 관련 논문의 경향 분석-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47-66.
- 은미영(2010). 인터넷동호회의 전집 정보 유통과 독서문화1.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2-34.
- 이경우·정영희·이차숙·노영희(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서울: 양서원.
- 이영숙·신유림(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도서구입 실태와 도서 정보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141-161.
-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임연수(1999). 가족구매의사 결정의 단계별 역할구조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아동도서구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영(1994). 전래동화에 대한 유아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훈(2000).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대한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미(1998). 유아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 교사, 학부모의 동화선호도 조사. *송의논집*, **22**, 125-150.
- 차은영(2003). 남녀 유아의 그림책 디자인 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신(1999). 질적자료수집: 생애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 현은순·홍혜경(2009). 심미적 탐색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과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159-183.
- 현은자·김세희(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16(2)**, 5-25.
- 현은자·김세희(2005). 그림책의 이해1. 파주: 사계절.
- Adams, M. J.(1990).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Cambridge, MA: MIT Press.
- Anderson, J., Anderson, A., Shapiro, J., & Lynch, J.(2001). Fathers' and mothers' book selection preferences for their four year old children abstract. *Reading Horizons*, **41(4)**, 189-210.
- Arnqvist(2000). Linguistic games as a way to introduce reading and writing in preschool groups. *Childhood Education*, **76(6)**, 365-367.
- Davila, D., & Patrick, L.(2010). Asking the Experts: What children have to say about their reading preferences. *Language Arts*, **87(3)**, 199-210.
- Doyle, B. G. & Bramwell, W.(2006). Promoting emergent literacy and social- emotional learning through dia-

- logic reading. *The Reading Teacher*, 59(6), 554-564.
- Kragler, S.(2000). Choosing books for reading: An analysis of three types of reader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4(2), 133-141.
- Mangleburg, T. F.(1990). Children's influence in purchase decision: A review and critiqu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813-825.
- Mason, J.(1992). *Reading stories to preliterate children: A proposed connection to reading*. In P. B. Gough, L. C. Ehri, & R. Treiman(Eds.), *Reading acquisition*(pp. 215-241). Hillsdale, NJ: Erlbaum.
- McNeal, J. U., & Yeh, C.(1997). Development of consumer behavior patterns among Chinese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1), 45-59.
- Mohr, K. A.(2006). Children's choices for recreational reading: A three-part investigation of selection preferences, rationals, and processes. *Journal of Literersearch*, 38(1), 80-104.
- Morrow, L. M.(1988). reading and retelling stories: Strategies for emergent readers. *The Reading Teacher*, 38, 870-875.
- Neuman, S. B., Dwyer, J., & Koh, S.(2007). *User's guide to the Child/Home Early Language & Literacy Observa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 Nikolajeva, M., & Scott, C.(2001). *How picture books work*. N.Y.: Garland Publishing.
- Olhausen, M., & Jepsen, M.(1992). Lessons from Goldilocks: "Somebody's been choosing my books but I can make my own choices now!" *The New Advocates*, 5, 31-46.
- Owens, E.(1992). Parent decision-making in reading aloud to first graders. (Ed. D. Dissertation). National-Louis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9 534).
- Palmer, B., Coding, &, & Gambell, L.(1994). In their own words: What elementary students have to say about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48, 176-178.
- Reutzel, D. R., & Gali, K.(1998). The art of children's book selection: A labyrinth unexplored. *Reading Psychology*, 19(1), 3-50.
- Robinson, F.(1983). *Parents' descriptions of young children's behavior toward favorite books*. (M.A. Thesis).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30 910).
- Roser, N., & Martinez, M.(1985). Roles adults play in pre-schoolers' response to literature. *Language Arts*, 62, 435-453.
- Schneider, P., & Hecht, B. F.(1995).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eir mothers during a book-sharing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42(1), 41-56.
- Shapiro, J., Anderson, J., & Anderson, A.(1997). Diversity in parental storybook readi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27-128, 47-59.
- Snow, C. E., & Dickinson, D. K.(1990). Social sources of narrative skills at home and school. *First Language*, 10, 87-103.
- 인용된 그림책 목록
 김서정 · 한성옥(2003). 나의 사직동. 서울: 보림.
 류재수(2009). 백두산 이야기. 서울 : 보림.
 Anthony Browne(2001). 돼지책. 서울 : 웅진주니어.
 Ian Falconer(2001).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Olivia). 서울 : 중앙출판사.

접수 일 : 2011년 03월 15일

심사 일 : 2011년 04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